

춤
 에고프면 먹고
 즐리면 자고

DO Dance



DO 댄스 단장 홍화영 / 안무연출

- 전북대학교 예술대 무용학과 졸업
- 1999 제2회 김백봉 춤보존회 공쿠르 대상 수상
- 2007 홍화영 Do Dance 무용단 창단
- 2009 프랑스 CND (Center National de le Dance) 프랑스 국립무용센터 수료
- 2010 폴란드 한국문화원 개관기념 / 한국문화페스티벌 : "공유" 연출 및 안무
- 서예퍼포먼스 "천상운집" 연출 및 안무
- 현) Do Dance 무용단 대표



정상용 / 영상연출

-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졸업
- 일본 도쿄아사기야 미술대학 영상학과 졸업
- 일본 도쿄일본대학 예술학부 영상예술연구과 석사 졸업
- 전북대학교 인문대학 박사 과정
- 현) Image Factory 대표
 골방아트필름 영화제 집행위원장



임은주(부단장), 오미린, 김주현, 이소영, 이선옥, 강산, 오천규, 이준용, 김지훈(특별출연)

- ★ 의상 1 : 김대희 ★ 의상 2 : 아레나(메트로 : 조은희)
- ★ 음향 : 이재정 ★ 조명 : 정재호 ★ 음악편집 : 박영중 ★ 나레이터 : 성표명

夕陽無限好，只是近黃昏

李義山詩 唐 黃 卓 書 戶 全 墨 於 社 藝 術 院 院 古 釋

夕陽無限好，只是近黃昏

오후의 햇살은 한없이 아름답지만 다만 아쉬운 것은 황혼이 가깝다는 것

석양은 해가 기울어져 가는 오후 4~6시 경을 이르는 말입니다. 황혼은 이미 태양은 저버리고 붉은 노을만 깔린 상태를 말합니다. 오후 4~6시는 하루 중 가장 열심히 일에 집중하는 하루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50~60대가 가장 열심히 일하고 가장 바쁠 때이며 가장 아름다운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건 이시기가 지나고 나면 황혼이 물들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아쉬운 시절이 오기 전에 가장 아름다워야 할 시기를 가장 아름답게 살자는 다짐을 하며 이 구절을 써 보았습니다. ㉮

선예, 무대위에 오르다

김병기의
 策歌墨舞
 필가묵무
 선예 노래 먹의춤



일시_ 2010.10.30(토) 늦은 7:30
 장소_ 전주시 전통문화센터 한벽극장

입장료 ₩8,000

서예를 무대에 올리며

일곱 살 때 아버님의 손에 이끌려 서예를 시작한 이후, 헛수로 치자면 50년 동안 큰 단절 없이 서예를 해왔습니다.

저는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선비가 되려는 포부를 가지고 끝까지 선비서예를 지향하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서예를 음악이나 무용과의 연계아래 새로운 장르의 예술을 창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4년에는〈서예의 무대공연 가능 근거에 대한 연구〉라는 논문을 발표 하였고, 2009년에는〈서예의 무대공연 시안(試案) 연구〉라는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공연〈김병기의 필가묵무 筆歌墨舞〉는 이러한 저의 오래된 생각을 음악, 무용, 조명, 영상의 도움아래 실지로 무대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자리입니다. 서예를 하나의 무대예술로 재탄생시키는 의미가 있는 공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큼니다.

앞으로도 청아한 선비서예를 지향하면서, 그런 선비서예를 바탕으로 21세기에 서예가 세계의 예술로 우뚝 서게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0월 일 전북대 연구실 持敬攢古齋에서 김병기 올림

김병기 金炳基 Kim Byeong-Gi

중국문화대학 박사-논문
《황정견의 詩와 書法에 대한 연구》

- 대한민국 서예대전 초대작가(현)
- 한국서예학회 회장(현)
- 세계서예전북 Biennale 총감독(현)
- 북경대학 서예연구소 해외 초빙교수(현)
- 대한민국 문화재청 고문서 감정위원 역임
- 중국 시학·미학·서예학 논문 50여 편, 서예 평론문 130여 편
- 제1회 원곡서예학술상 수상
- 국립 전북대학교 중어중문과 교수(현)

- 2004 제1회 김병기 서예전, 서울 백악미술관
- 2007 제2회 김병기 서예전, 전주 강암서예관
- 2009 Korean Paper Exhibition - 김병기 Calligraphy 展, CORUS HOUSE, Washington D.C U.S.A
- 2009 서예퍼포먼스, Smithsonian Institution Hirshhorn Museum and Sculpture Garden Ring Auditorium, Washington D.C U.S.A
- 2009 서예퍼포먼스, 경복궁 자경전
- 중국, 일본, 미국, 대만 등 유명전시회 초대출품 수 십 회

- 저서 《사라진 비문을 찾아서-고구려광개토대왕비의 진실》(2005 학교재)의 14종

[프롤로그]

서예는 음악이자 무용이다



1. 뿌리 깊은 나무

뿌리 깊은 나무
根深之木, 風亦不[~]; 有灼其華, 有[~]其實
源遠之水, 旱亦不竭, 流斯爲川, 于海必達
뿌리가 깊은 나무라야 큰 바람에도 밀리지 않고 굳건히 자라서 꽃도 많이 피고 열매도 많이 맺습니다. 샘이 깊은 물이라야 철철 넘쳐흘러서 내를 이루고 강을 이뤄 바다에까지 이릅니다. 용비어천가 제3장의 내용입니다.

2. 눈길도 함부로 걷지 마라

踏雪野中去, 不須胡亂行
今日我行蹟, 遂作後人程
눈을 밟으며 들길을 갈 때 절대 함부로 걷지 마라.
오늘 네가 남긴 발자국이 뒤에 오는 사람에게는 이정표가 될 것이니.

※이 시는 서산대사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선후기의 문인인 이양연의 시라는 설도 있습니다. 백범 김구선생께서는 평소에 이 시를 즐겨 읊조리셨습니다. 1946년, 남북 분단 정부의 수립을 막아볼 생각으로 북측과 담판을 하기 위해 38선을 넘을 때도 백범선생은 이 시를 읊는 것으로 당시의 소회를 대신했다고 생각합니다. 눈길을 가기도 이렇게 쉽지 않은데 하물며 국가를 이끄는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시입니다.



3. 절대자유의 춤을 막는 자 누구인가?

大醉起舞
天衾地席山爲枕, 月燭雲屏海作樽.
大醉居然仍起舞, 却嫌長袖掛崑崙.
하늘은 이불, 땅은 깔 자리,
산으로 베개 삼고, 달은 촛불,
구름은 병풍, 바다로 술동이를 삼아,
크게 취해 일어나 춤을 추나니,
내 긴 소매 자락 곤륜산에 걸릴까
염려되는구나.



4. 사라져야 할 것들

戰爭, 공포, 거짓, 疾病, 억압, 이 세상 모든 惡

5. 사랑

사랑 愛
그옥이 바라보는 두 눈에서
뚝뚝
떨어져 내리게 하소서

[에필로그]

저는 서예 퍼포먼스라는 이름아래 대빛자루나 봉걸레처럼 커다란 붓을 들고서 마치 마당을 쓸 듯이 혹은 걸레질을 하듯이 먹칠을 하는 경우를 더러 보았습니다. 그것은 행위예술은 될지언정 서예는 아닙니다. 서예는 먹칠을 하여 공간을 채우는 유희적 행위예술이 아니라, 팔의 힘이 감당할 만한 붓으로 살아있는 필획을 구사함으로써 평소에 작가의 내면에 수양으로 쌓여있는 청정한 정신을 표출하게 하는 예술입니다. 단전으로부터 발원하여 배를 거치고 어깨를 지나 팔을 타고 내려온 힘이 붓털의 허리에 이르러 나긋나긋한 탄력으로 변하여 춤사위를 이루고 그 춤사위가 종이를 뚫을 듯이 박힐 때 작가의 사상과 감정과 삶이 함께 박혀야만 진정한 서예입니다.

김병기

